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청소년 직업가치 유형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박민지** · 이신혜***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직업가치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개인, 가정, 학교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6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에서 고등학교 3학년(중1 패널) 중 직업가치문항에 응답한 2,056명(남1,041, 여1,015)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직업가치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분석한 결과 네 집단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각 유형의 직업가치 요인 별 점수를 고려하여 “전반적 고중시형”(22.2%), “적성·안정 중시형(16.8%)”, “전반적 중시형”(56.8%), “내적보상 경시형”(4.2%)으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 별로 영향 요인의 평균 점수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각 유형 간 영향 요인 또한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개인변인으로는 성별, 성적,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 공동체 의식이, 가정변인으로는 부모의 감독적 양육방식과 애정적 양육방식, 아버지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가, 학교변인으로는 교우관계, 직업체험 활동의 참여 여부가 직업가치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대상의 진로상담 및 교육 시 상이한 직업가치 유형을 보이는 집단별로 대상의 개인, 가정 및 학교생활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 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잠재프로파일 분석, 청소년, 직업가치

* 본 연구는 제 5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발표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졸업, lee.sinhye@snu.ac.kr

I. 서 론

「201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35.3%)’, ‘직업(25.6%)’, ‘외모·건강(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직업과 진로는 큰 고민 거리 중 하나이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흥미와 능력의 범위 안에 속하는 직업들 중에서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잠재적 직업선택의 범위를 좁히고, 현실적으로 특정 직업에 진출할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Super, 1990).

청소년기 중에서도 고등학교 시기는 개인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급변하는 직업 세계를 탐색하며, 진로결정에 필요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이다(김소라, 황영준, 2016).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과정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진로발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아람, 김보영, 2015).

국내에서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연구는 1900년대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정미나, 노자은, 2016). 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가운데 흥미, 적성, 가치, 성격, 자아개념이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Russell, 2001; 하문선 2014에서 재인용). 그 중에서도 직업가치는 진로선택 및 이후의 직업적응과 직업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Dawis & Lofquist, 1984).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일을 하고 동시에 직업을 통해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06). 많은 연구들에서 직업가치는 청소년의 진로선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왔으나(Brown, 2002), 흥미, 능력, 성격 특성과 비교하여 덜 주목받아왔다(Robinson & Betz, 2008; Rottinghaus, Hees, & Conrath, 2009). 이러한 직업가치를 탐색하고 이를 명료화하는 작업은 합리적인 진로결정에 선행하고, 개인이 직업으로부터 추구하는 가치와 개인이 선택한 직업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직업 분야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낮은 직업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직업가치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7).

그동안 직업가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변인들 간의 관련성(강원덕, 안귀여루, 2010; 김현미, 임은미, 2012; 선혜연 외 2007; 이아람, 김보영, 2015; 전중희, 2014), 직업가치의 변화(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7; 이지연, 2006; 임언, 박보경, 현진실,

2012; 주석진, 2013), 직업가치관의 구조(신세인, 이준기, 하민수, 이태경, 정영희, 2015), 직업가치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 간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수정, 2013; 하문선, 2014). 그러나 이러한 변인 중심적 분석(variable-centered analysis)을 실시한 연구들에서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은 직업가치가 개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직업가치의 하위 요인들이 개인 내에 여러 수준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직업가치의 수준을 잠재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중심적 분석(person-centered analysis)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람중심적 분석은 변수 중심적 접근과는 달리 모수 추정값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되는지 관심을 두는 방법으로(하문선, 김경집, 김복환, 2014), 직업가치의 요인들이 어떻게 개인 내에서 다양하게 통합되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진로상담분야에서는 연구와 실천의 측면에서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처치(differential diagnosis and differential treatment)’가 강조되어 왔다(김봉환, 김계현, 1997). 이는 진로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들에게 동일한 처치를 하기 보다는 내담자 각각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상담전략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박민지, 김계현, 2015). 이를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내담자에 대한 차별적인 진단이다(김봉환, 김계현, 1997).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직업가치의 하위요인 별 수준이 상이한 여러 잠재집단이 확인된다면, 이를 통해 집단별 맞춤형 상담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직업가치에 따라 잠재집단을 분류한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문선 외(2014)의 연구로, 잠재집단의 분류하는 것이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전략을 제공하는 데 유용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가치 하위 요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질적인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선택과 적응을 조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직업가치는 어떠한 잠재유형으로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직업가치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직업가치

가치(value)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다 선호되는 특정한 행동양식 혹은 궁극적 상태로 정의된다(Rokeach, 1973). 이러한 가치 중에서도 직업가치는 ‘개인이 직업으로부터 기대하는 보상이나 특질’로 정의되며(김정숙, 2006), 직업선택이나 직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가치로 알려져 있다. Super(1990)는 개인의 욕구와 가치를 연관 지으면서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욕구(needs)를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욕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흥미와 가치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가치는 욕구보다는 구체적이고 흥미보다는 일반적인 개념이며, 흥미는 가치, 가정생활, 사회계층, 문화, 물리적 환경과 같은 요인으로부터 얻어지므로 흥미는 가치를 반영하며, 흥미의 내면에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06).

진로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개인의 진로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었다(어윤경, 2008). 대표적인 것이 직업흥미와 더불어 직업 가치관을 고려하는 것이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충족되는 직업 환경을 선택하면 보다 높은 직업만족도와 직업적응을 예측할 수 있다. 직업가치는 일로부터 얻어지는 다양한 보상과 연관된 중요성을 반영한다(Johnson & Mortimer, 2015). Brown(2002)은 이러한 직업가치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며, 이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은 특정 가치를 강화하거나 억제한다고 보았다.

청소년기는 이러한 직업가치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Johnson & Mortimer, 2015). 청소년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개인적인 가치나 삶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미래의 진로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데, 특히 각 직업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고려하게 되고 그러한 직업인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자신의 것과 잘 맞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김봉환 외, 2010). 직업가치를 확인하고 명료화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는 잠재적인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도록 이끈다(Dawis, 2002).

직업가치의 분류에는 다양한 대안적 관점이 존재하지만 전통적으로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로 분류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Sortheix, Dietrich, Chow, & Salmela-Aro, 2013). Rosenberg(1957)은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보상을 자기표현 가치로, 수행된 일을 통해 돌아오는 보상을 외적 가치라고 명명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Herzberg, Mausner, & Snyderman(2011)은 일의 본질적인 내용과 일과의 교환을 통해 얻어지는 보상을 포함한 직업 상황과 맥락을 구분한 바 있다. 이러한 분류들에 따르면 내적 가치에는 흥미, 학습의 기회, 의미, 도전, 타인과 사회에 미치는 유익 등이 속하며, 외적 가치는 보수, 안정성, 명예, 승진 기회 등을 포함한다. 어떠한 측면을 내재적 또는 외재적인 것으로 포함하는가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내재적 측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일 자체를 중시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과 자율성, 일을 통한 능력발휘의 기회 및 자신의 성장 등의 내적 보상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지연, 2006). 현재까지 국내연구에서는 한 시점에서 개인의 직업가치 선호 경향을 내적가치와 외적가치 둘 중 하나로 분류하고 이러한 직업가치와 진로관련 변인들의 관련성(김정숙, 2006; 김현미, 임은미, 2012, 선혜연 외, 2007; 양한주, 1988; 정주영, 2013; 주석진, 2013)을 살펴본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인 중심 분석(variable-centered analysis)은 직업가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요인과 다양한 진로관련 변인들에 직업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한 개인의 직업가치에 대한 선호 경향성은 내적가치와 외적가치 중 어느 하나로 뚜렷하게 구분될 수도 있지만, 이는 개인 간 뿐만 아니라 개인 내에서도 다양한 수준과 양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하문선 외(201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가치의 점수를 이용하여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함으로써 한국 대학생에게서 존재하는 자연발생적인 직업가치 유형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각 잠재프로파일이 개인 및 사회환경적인 변인에서 어떠한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직업가치 유형은 크게 세 집단으로 나타났고(외적 보상 경시 집단, 외적 보상 중시 집단, 환경적 보상 중시 집단), 성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적 등의 요인이 직업가치 프로파일 분류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업가치의 영향 요인

1) 개인적 요인

청소년의 직업가치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직업가치는 개인특성, 가정배경, 심리사회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그 중에서도 성별은 직업가치의 차이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김정숙, 2006). 성별과 직업가치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남성은 보수, 인정, 지위, 독립성을 더 중시하는 반면 여성은 사회봉사, 관계형성 등의 직업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김정숙, 2006; 선혜연 외, 2007; 양한주, 1988; Duffy & Sedlacek, 2007; Singer & Steffire, 1954; Thompson, 1966; Wagman, 1965)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외재적 직업가치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 Mortimer, 2015). 이러한 차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각각 기대되는 성역할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선혜연 외, 2007).

그 다음으로 학업성취 또한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열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aro & Philbald, 1965) 국내연구에서도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직업포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김경주, 송병국, 박정배, 2009; 김정숙, 2006; 정종화, 2002; 하문선 외, 2014;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업, 즉 외적 보상이 주어지는 직업을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업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능력과 자격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업성취는 직업가치에 대한 상이한 선호와 기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병률, 1986).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변인 중 하나인 진로정체감 또한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진로정체감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청사진을 의미한다(Holland, 1985). 직업가치와 진로성숙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박소희, 2011; 어윤경, 2008; 이기학, 1992; 이호진, 김완일, 2015)에 따르면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내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내적 직업가치의 점수는 높으나 이것이 외적 직업가치

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이현립, 권소희, 2000). 삶의 만족도 또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손연아 외, 2014) 삶의 만족도에 따라 청소년의 직업 가치 유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직업가치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보았을 때, 청소년의 직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공동체 의식을 들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이란 사회 내 공동운명체적 특성을 지닌 구성원들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형성되는 정서적 차원의 공통된 감정을 의미한다(구지윤, 김유나, 2016). 특히 현대사회는 이전 보다 더 다양해진 인구학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세계이므로,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게 도와주는 공동체의식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박수원, 김섯별, 2016). 특히 직업가치의 하위 요인 중 하나인 애국, 사회봉사, 사회 헌신과 기여 등은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정 요인

직업가치의 생성과 변화에는 타고난 기질 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심리적 환경은 부모와의 관계이다(김현미, 임은미, 2012).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민감하게 살피고 반응을 잘 해주는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친사회적인 가치를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으며(Kohn & Schooler, 1983)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소년은 ‘자기수용, 친밀감, 유대감’과 같은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소년에 비해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asser, Ryan, Zax, & Sameroff, 1995). 민주적이고 통제적이지 않으며 따뜻한 부모는 자녀를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자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게 하므로 자녀는 자연스럽게 내적 가치를 형성하게 되지만,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는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Williams et al., 2012).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심리적 통제를 가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회피하거나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를 탐색하는 작업을 포기할 수 있다(Berrios-Allison, 2005). 국내 연구에서도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소년들은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의 지지는 덜 받고, 통

제는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선혜연 외, 2007).

부모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대화의 빈도 또한 청소년의 직업가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 간의 접촉은 직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데(송현순, 1997) 선행연구들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보채, 2003; 이상길, 2002; 이은혜, 2013; 정미숙, 2008). 특히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나, 2015; 이상길, 2002), 황여정(200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정보수준에 가정 내 진로지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및 활동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시하였으며(김남줄, 1994; 양한주, 1998), 특히 가정의 경제수준에 관하여 김정숙(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외적가치를 추구하고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 요인

학교는 청소년들이 하루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 중 하나다(노연경, 정송, 홍세희, 2014). 이 중에서도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안현자, 이창환, 2011; 이해경, 김혜원, 김은아, 2013; 이효성, 2001; 차정원, 이형실, 2014; Youniss & Haynie, 1992; Brown, Mounts, Lamborn, & Steinberg, 1993). 이는 개인의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탐색과정에서 친구가 유용한 탐색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황여정, 2007)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의사소통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대안적 견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것을 돕는다(Young et al., 1997).

교사와의 관계적 변인 또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오정아, 남부현, 2014). 이지혜(2013)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적극적 지원과 친밀한 관계는 학생의 학습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청소년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며 이는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 이효성(2001)의 연구에서도 교사와의 친밀도, 상담 받고 싶은 교사의

유무 등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쳤고, 이상길(2002)의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인은 직업체험활동이다.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자신이 겪은 것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체험활동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현옥, 1989; 박경자, 2008; 박미정, 2009).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은 배려, 이타성, 헌신 등의 내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희, 2007; 김영철, 2005). 김재철 외(2011)의 연구에서도 진로체험활동은 내적인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험활동이 갖는 자율성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내적 직업가치의 추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직업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로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는 성별, 성적,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 공동체의식을, 가정적 특성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방식, 가족(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간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 사회경제적 지위를, 학교 특성 변인으로 교우관계, 교사관계, 직업체험활동으로 각각 선정하였으며, 이를 연구 모형에 투입하여 청소년 직업가치의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이동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패널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351명의 표본 중 직업선택요인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295명의 표본을 제외한 2,056명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남학생 1,041명(50.6%), 여학생 1,015명(49.4%)으로 구성되었다.

2. 측정도구

1) 직업가치요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직업가치문항을 바탕으로 직업가치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박민지, 이신혜(2016)의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세 가지 직업가치요인을 이용하여 잠재집단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직업가치는 크게 내적가치와 외적가치로 가장 많이 분류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에 다양하게 통합되어 존재하는 직업가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각각의 직업가치의 의미가 최대한 드러나도록 요인명을 설정하였다. 이는 “안정성·시간여유”요인(이하 요인1), “적성·자율성·관계”(이하 요인2)요인, “수입·명예·기여”요인(이하 요인3)이다(표 1). 요인 2의 경우 기존의 직업가치 분류에서 내적 가치에 해당하는 요인이고, 요인 1, 3의 경우 외적 요인에 해당한다. 이를 구성하는 12개의 문항은 직업을 선택할 때 각각의 요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를 역코딩하여 각 점수가 1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4점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와 청년패널(YP2007)의 조사 문항을 참고한 것이다.

표 1
직업가치요인에 대한 설명

요인	문항	평균	신뢰도
안정성·시간여유 요인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일하는 환경이 쾌적하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보장 된다.	3.33	.74
적성·자율성·관계 요인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다. 직장 동료와의 경쟁이 심하지 않다.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3.29	.78
수입·명예·기여 요인	수입(임금)이 많다.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다.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2.90	.66

2) 독립변수

위의 직업가치 요인을 바탕으로 프로파일 유형을 나눈 뒤, 이러한 직업가치 프로파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사용한 독립변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독립변수는 모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역코딩한 점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개인, 가정, 학교 변인에 따라 나누어지며, 개인 변인으로는 성별, 성적,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 공동체의식을, 가정 변인으로는 수입, 양육방식, 가족 구성원과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를, 학교 변인으로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직업체험활동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에 대한 평균과 내적타당도 계수 또한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

분류	변수	설명	평균	신뢰도
개인	성별	여학생은 0, 남학생은 1로 코딩함	0.51	-
	성적	전체 성적 주관적 평가점수로 1점~7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수함을 의미함	4.07	-
	진로정체감	공인규(2008)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진로관련 6개 문항의 평균으로 1점~4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2.01	.87
	삶의 만족도	김신영 외(2006)의 척도를 참고한 삶의 만족도 관련 2개 문항의 평균으로 1점~4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3.07	.66
	공동체의식	권혜원(2004)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공동체의식 관련 4개 문항의 평균으로 1점~4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3.99	.70
가정	수입	가정의 경제수준 평가에 대한 응답으로 1점~7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4.02	-
	양육방식(감독)	허묘연(2000)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양육방식(감독) 관련 3개 문항의 평균으로 1점~4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임	3.09	.80

분류	변수	설명	평균	신뢰도
	양육방식 (애정)	허묘연(2000)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양육방식(애정) 관련 4개 문항의 평균으로 1점~4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임	3.02	.81
	진로관련 대화 (아버지)	아버지와의 진로관련 대화빈도로 1점~4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빈도가 높음을 의미함	2.97	-
	진로관련 대화 (어머니)	어머니와의 진로관련 대화빈도로 1점~4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빈도가 높음을 의미함	3.37	-
	진로관련 대화 (형제자매)	형제자매와의 진로관련 대화빈도로 1점~4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빈도가 높음을 의미함	2.61	-
	교우관계	문선모(1977), 이상필(1990)의 척도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척도(정화실, 1991에서 재인용)를 수정·보완한 교우관계 관련 4개 문항의 평균으로 1점~4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3.14	.70
학교	교사관계	문선모(1977), 이상필(1990)의 척도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척도(정화실, 1991에서 재인용)를 수정·보완한 교사관계 관련 4개 문항의 평균으로 1점~4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2.96	.85
	직업체험활동	직업체험활동 연간 참여경험 유무로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0, 있는 경우 1로 코딩함	0.16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직업선택요인에 대하여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력을 주는 변인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Mplus7*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혼합모형(mixture model) 분석의 일종으로 관측되지 않은 잠재집단을 가정한다(Vermunt, 2004).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군집분석과 목적을 같이하나, 다양한 기준을 이용하여 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기준에는 적합도인 AIC, BIC, ABIC, 집단 분류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Entropy, 집단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전 모형과 비교하여 유의도를 검증하는 LMRLRT과 BLRT 등이 있다

(Berlin, Williams, & Parra, 2014).

이러한 적합도 지수를 통해 결정된 집단의 유형에 따라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인들에 따라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할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분산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직업가치 잠재프로파일 유형

1) 잠재프로파일 유형의 결정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집단의 수를 늘려가며 각 집단 수에 따라 분석한 혼합모형의 다양한 적합도 및 유의도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잠재집단의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잠재집단의 수가 많아질수록 Log likelihood는 커지고, AIC, BIC, ABIC 값은 작아져서 잠재집단의 수가 많을수록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Entropy는 집단의 수가 2개일 때 가장 정확하게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3개 집단일 때 높고, 4개와 5개 집단일 때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앞선 모형과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지수로 LMRLRT은 4개의 집단이 적절함을, BLRT는 5개의 집단이 적절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와 집단 별 각 집단에 속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집단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3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비교

	잠재집단 수			
	2개	3개	4개	5개
Log likelihood	-3865.90	-3703.44	-3653.56	-3613.20
AIC	7757.80	7440.87	7349.12	7276.39
BIC	7830.71	7536.22	7466.90	7416.60

	잠재집단 수			
	2개	3개	4개	5개
ABIC	7789,40	7482,21	7400,18	7337,18
Entropy	0,98	0,87	0,79	0,82
LMR(p-value)	<0,05	<0,001	<0,01	0,597
BLRT(p-value)	<0,001	<0,001	<0,001	<0,001

표 4
잠재집단 별 잠재평균 추정치

	안정성 · 시간여유 요인		적성 · 자율성 · 관계 요인		수입 · 명예 · 기여 요인	
	M	S.E.	M	S.E.	M	S.E.
(집단 1) 전반적 고중시형 456명(22,2%)	3,73	0,04	3,83	0,02	3,45	0,08
(집단 2) 적성 · 안정 중시형 345명(16,8%)	3,50	0,05	3,74	0,02	2,51	0,09
(집단 3) 전반적 중시형 1,168명(56,8%)	3,16	0,02	3,03	0,01	2,81	0,02
(집단 4) 내적 보상 경시형 86명(4,2%)	2,87	0,09	2,14	0,06	2,73	0,09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잠재집단을 명명하기 위하여 표 4와 그림 1에 각 잠재프로파일 유형의 직업가치요인 평균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각 집단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집단 1과 집단 3의 경우 잠재집단 1이 잠재집단 3에 비하여 점수가 높은 점을 제외하고는 프로파일 형태가 매우 유사하였다. 집단 1은 직업가치 요인 모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인 점수들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전반적 고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잠재집단에 속한 학생은 456명으로 전체 학생의 22,2%를 차지하였다. 집단 3은 모든 직업가치요인을 ‘중요한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으로 ‘전반적 중시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학생의 56,8%(1168명)가 이 집단에 해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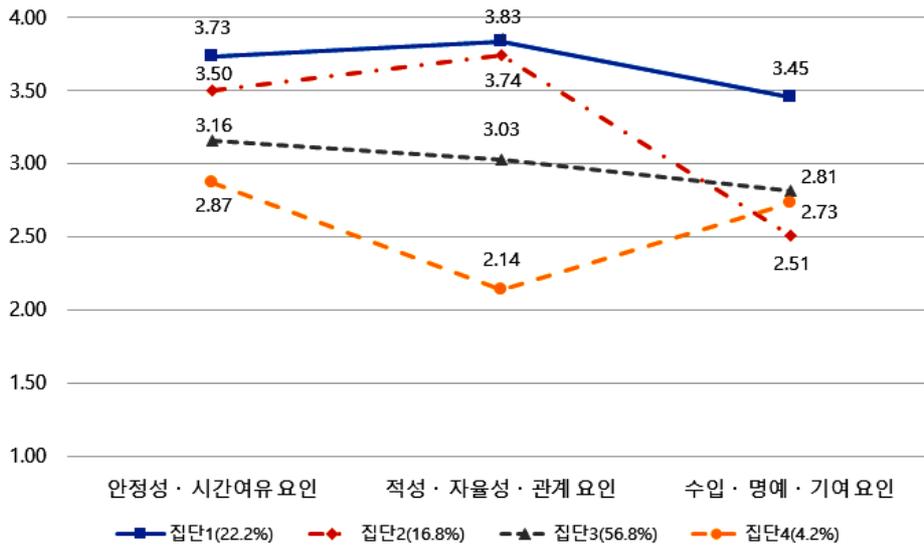


그림 1. 직업가치 요인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집단 2는 상대적으로 내적가치에 해당하는 요인 2의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외적보상에 해당하는 요인 1의 점수가 높지만 요인 3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내적가치와 외적가치로 분류된 직업가치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수입·명예·기여 요인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업무 자체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만족감과 안정성, 시간여유를 중요시하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성·안정 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 속한 학생은 345명으로 전체 학생의 16.8%가 해당되었다. 집단 4는 외적 가치가 다른 세 집단과 비교하여 낮은 편에 속하지만 요인 3의 경우 집단 2보다는 높고, 상대적으로 내적 가치에 해당하는 요인 2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으로 “내적 보상 경시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 속한 학생은 86명으로 전체 학생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집단의 이름을 집단 1은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 2는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 3은 “전반적 중시형”, 집단 4는 “내적 보상 경시형”으로 명명하였다.

2) 잠재프로파일 유형 별 기술통계

각 프로파일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개인 변인과 관련하여 남학생의 비율은 내적 보상 경시형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성적은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과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공동체의식은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이 가장 높았다. 가정 변인과 관련하여 수입은 전반적 중시형 집단이 가장 많았고, 감독적 양육방식과 애정적 양육방식 모두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다. 진로관련 대화 빈도 또한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에서 가장 많았다. 학교 변인과 관련하여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모두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과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잠재집단 별 변수 평균(표준편차)

	전반적 고중시형	적성· 안정 중시형	전반적 중시형	내적 보상 경시형	
개인	남자	0.53 (0.50)	0.58 (0.49)	0.47 (0.50)	0.59 (0.50)
	성적	4.27 (1.31)	3.91 (1.30)	4.04 (1.22)	3.83 (1.51)
	진로정체감	3.14 (0.64)	3.18 (0.66)	2.93 (0.58)	2.86 (0.69)
	삶의 만족도	3.17 (0.67)	3.17 (0.69)	3.02 (0.56)	2.82 (0.68)
	공동체의식	3.14 (0.57)	3.03 (0.56)	2.93 (0.44)	2.72 (0.54)
가정	수입	3.89 (0.93)	3.92 (0.92)	4.03 (0.83)	4.07 (1.12)
	양육방식(감독)	3.22 (0.61)	3.17 (0.65)	3.02 (0.53)	2.97 (0.69)
	양육방식(애정)	3.14 (0.60)	2.99 (0.63)	2.98 (0.50)	2.86 (0.63)
	진로관련 대화 (아버지)	3.13 (0.90)	2.98 (0.90)	2.93 (0.87)	2.63 (0.92)
	진로관련 대화 (어머니)	3.47 (0.76)	3.40 (0.82)	3.34 (0.76)	3.11 (0.92)
	진로관련 대화 (형제자매)	2.73 (1.11)	2.60 (1.13)	2.58 (1.05)	2.30 (1.08)
학교	교우관계	3.30 (0.47)	3.21 (0.45)	3.07 (0.35)	3.05 (0.45)
	교사관계	3.12 (0.67)	2.99 (0.67)	2.90 (0.52)	2.80 (0.61)
	직업체험활동	0.18 (0.38)	0.18 (0.38)	0.16 (0.37)	0.07 (0.25)

2. 직업가치 잠재프로파일 유형의 영향요인 검증

위의 분류된 집단을 바탕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유의한 변인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개인 변인과 관련하여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전반적 중시형 집단보다는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 또는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보다는 전반적 고중시형이나 전반적 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전반적 중시형 집단보다는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에,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보다는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보다는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에, 내적 보상 경시형 집단보다는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이나 전반적 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내적 보상 경시형 집단보다는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이나 전반적 중시형, 전반적 중시형 집단보다는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가정 변인과 관련하여 감독적 양육방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 중시형 집단보다는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에, 애정적 양육방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보다는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 또는 전반적 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진로관련 대화빈도에서 아버지와의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내적 보상 경시형 집단보다는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학교 변인과 관련하여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전반적 중시형 집단보다는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이나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교사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내적 보상 경시형 집단보다는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잠재집단 별 변수 평균(표준편차)

	전반적 고중시형 vs. 적성·안정 중시형		전반적 고중시형 vs. 전반적 중시형		전반적 고중시형 vs. 내적 보상 경시형	
	b(SE)	exp(b)	b(SE)	exp(b)	b(SE)	exp(b)
남자	0.18(0.16)	1.19	-0.28(0.12)*	.76	0.12(0.26)	1.13
성적	-0.19(0.06)**	.83	-0.02(0.05)	.98	-0.06(0.10)	.94
진로정체감	0.28(0.14)*	1.32	-0.27(0.10)**	.76	-0.10(0.21)	.91
삶의 만족도	0.39(0.15)**	1.48	0.21(0.11)	1.23	-0.34(0.22)	.71
공동체의식	-0.22(0.18)	.81	-0.30(0.14)*	.74	-1.03(0.27)***	.35

	전반적 고중시형 vs. 적성·안정 중시형		전반적 고중시형 vs. 전반적 중시형		전반적 고중시형 vs. 내적 보상 경시형	
	b(SE)	exp(b)	b(SE)	exp(b)	b(SE)	exp(b)
수입	0.03(0.09)	1.03	-0.07(0.07)	.93	0.03(0.15)	1.03
양육방식 (감독)	0.19(0.16)	1.21	-0.21(0.12)	.81	-0.04(0.25)	.96
양육방식 (애정)	-0.54(0.16)**	.58	-0.13(0.13)	.88	-0.13(0.27)	.88
진로대화 (아버지)	-0.18(0.10)	.83	-0.13(0.08)	.88	-0.40(0.15)**	.67
진로대화 (어머니)	0.13(0.12)	1.14	0.07(0.09)	1.08	0.07(0.18)	1.07
진로대화 (형제자매)	-0.03(0.07)	.97	-0.08(0.06)	.93	-0.19(0.12)	.83
교우관계	-0.37(0.22)	.69	-1.05(0.18)***	.35	-0.53(0.34)	.59
교사관계	-0.18(0.15)	.83	-0.11(0.12)	.90	-0.18(0.24)	.84
직업체험활동	0.11(0.20)	1.12	-0.06(0.15)	.94	-0.88(0.45)	.42
	적성·안정중시형 vs. 전반적 중시형		적성·안정중시형 vs. 내적 보상 경시형		전반적 중시형 vs. 내적 보상 경시형	
	b(SE)	exp(b)	b(SE)	exp(b)	b(SE)	exp(b)
남자	-0.45(0.14)**	.64	-0.05(0.27)	.95	0.40(0.24)	1.49
성적	0.17(0.06)**	1.19	0.13(0.10)	1.14	-0.04(0.09)	.96
진로정체감	-0.55(0.12)***	.58	-0.38(0.22)	.69	0.17(0.19)	1.19
삶의 만족도	-0.18(0.13)	.83	-0.73(0.23)**	.48	-0.55(0.20)**	.58
공동체의식	-0.08(0.16)	.92	-0.81(0.29)**	.44	-0.73(0.26)**	.48
수입	-0.10(0.08)	.90	0.00(0.15)	1.00	0.10(0.14)	1.11
양육방식 (감독)	-0.40(0.14)**	.67	-0.23(0.25)	.80	0.17(0.23)	1.19
양육방식 (애정)	0.41(0.15)**	1.50	0.41(0.28)	1.51	-0.00(0.25)	1.00
진로대화 (아버지)	0.06(0.09)	1.06	-0.21(0.16)	.81	-0.27(0.14)	.77
진로대화 (어머니)	-0.06(0.11)	.95	-0.06(0.19)	.94	-0.01(0.17)	.99
진로대화 (형제자매)	-0.05(0.07)	.95	-0.17(0.12)	.85	-0.11(0.11)	.89
교우관계	-0.68(0.20)***	.51	-0.16(0.35)	.85	0.52(0.32)	1.68
교사관계	0.08(0.13)	1.08	0.01(0.24)	1.11	-0.07(0.22)	.93
직업체험활동	-0.17(0.18)	.84	-0.99(0.46)*	.37	-0.81(0.44)	.44

* p<.05, ** p<.01, *** p<.001

※ 앞의 집단이 참조집단임.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직업가치의 하위 요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질적인 잠재 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이러한 잠재 계층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 요인들의 학교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직업가치 잠재 프로파일은 총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형태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집단은 안정성·시간여유 요인(이하 요인1), 적성·자율성·관계 요인(이하 요인2), 수입·명예·기여 요인(이하 요인3) 모두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은 전체 참여 인원 중 456명(22.2%)을 차지했다. 두 번째 집단은 요인1, 2는 높고 상대적으로 요인 3은 낮은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으로 345명(16.8%)이 여기에 속했다. 세 번째 집단은 모든 직업가치 요인이 ‘중요한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으로 ‘전반적 중시형’으로 명명하였으며 1,168명(56.8%)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이 집단에 속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은 요인1, 3은 어느 정도 중요한 편이라고 응답한 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내적 가치에 해당하는 요인 2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적 보상 경시형’으로 86명(4.2%)이 포함되었다. 이는 직업가치 하위 요인이 조합된 양상이 다양한 유형으로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가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잠재프로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직업가치를 단순히 내적-외적 분류 방식에서 벗어나 한 개인 내에도 여러 가지의 직업가치 요인이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는 반드시 양 극단에 위치한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Mark, Jennifer, & Sheena, 2005).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시 내담자를 특정 직업가치 유형으로 성급히 분류하기 보다는 다양한 직업가치를 스스로 충분히 탐색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봄으로써 이를 진로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반적 고중시형’과 ‘전반적 중시형’에 속한 학생들의 비율의 의미에 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각각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진로상담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연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1,624명(78.0%)이 세 요인 모두가 ‘매우 중요한 편’ 혹은 ‘중요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

는 자신이 어떤 직업가치를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명료화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 중시형’의 집단은 ‘전반적 고중시형’과 비교하여 진로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가치가 명료화 될수록 별 어려움이나 갈등 없이 결정력을 발휘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진로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선택 및 결정에 있어 진로가치의 명료화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이정애, 최웅용, 2008). 따라서 진로상담 시 ‘바람직한’ 직업가치에 초점을 두어 상담하기보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를 보다 명료화하고 자신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과 자신의 희망직업의 관련성을 탐색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하문선, 2014).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직업가치를 활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서 직업가치가 지니는 의미와 표현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특정 직업가치의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Carlstrom & Hughey, 2014).

둘째,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개인 변인부터 살펴보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전반적 중시형 집단보다는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이나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성적이 높을수록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보다는 전반적 고중시형이나 전반적 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중시형 집단보다는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에,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보다는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보다는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에, 내적 보상 경시형 집단보다는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이나 전반적 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내적 보상 경시형 집단보다는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이나 전반적 중시형 집단에, 전반적 중시형 집단보다는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중에서도 공동체의식이 직업가치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특히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여 가치가 포함된 3요인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또한 직업 및 진로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 함양을 조력하는 진로개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정 변인으로는 부모의 양육방식, 아버지와의 대화 빈도가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감독형일수록 전반적 중시형 집단보다는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애정형일수록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보다는 전반적 중시형 집단이나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진로 관련 대화빈도에서는 아버지와의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외적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적 보상 경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상담 개입에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직업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가 따뜻한 애정을 통해 자녀를 편안하게 해주며 자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차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수록 상대적으로 내적, 외적 가치를 모두 중요시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부모-자녀의 원만한 관계가 청소년의 내·외적 가치를 모두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현미, 임은미, 2012; 선혜연 외, 2007). 또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이것이 직업가치관 명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신혜진, 2014)는 청소년이 내·외적 직업가치관을 균형 있게 탐색하고 이를 명료화하는 과정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진로발달을 위한 개입 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개입과 더불어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대학 진학 및 학업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둔 현재의 부모교육 방향에서 변화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방식을 통해 자녀 스스로 자신의 내·외적 직업가치를 균형 있게 탐색하고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직업 외적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미결정과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한국 고등학생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아람, 김보영, 2015).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보상 경시형” 집단과 같이 상대적으로 내적가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에 대한 진로개입 시 부모에 대한 자녀 진로지도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내적 가치 또한 충분히 탐색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최근 물질만능주의로 치닫는 청소년 문제를 줄이고 그들의 행복감을 증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선혜연 외, 2007).

그 다음으로 학교 변인으로는 교우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전반적 중시형 집단보다는 전반적 고중시형 집단이나 적성·안정 중시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

고,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집단 내적 보상 경시형 집단보다는 적성·안정 중시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체험 활동이 내적인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김소희, 2007; 김영철, 2005; 김재철 외, 2011).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주도적으로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탐색하여 이것이 내적가치의 탐색과 진로가치 명료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자료를 통해 청소년 집단의 직업가치 유형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고,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개인, 가정, 학교 변인들을 통해 직업가치 유형을 예측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에 있어 상이한 직업가치 유형을 보이는 하위 집단별로 차별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직업가치 하위 요인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는 횡단연구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 발달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이러한 발달은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심리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이러한 집단 분류와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 변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진로관련대화 상대/빈도'는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에 관한 정보는 담고 있지 못하다. 대화의 빈도뿐만 아니라 대화의 질적인 측면에 관한 정보가 고려된다면 진로관련 대화가 직업가치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잠재계층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의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보다 심도 있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덕, 안귀여루 (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61-175.
- 공인규 (2008). **Holland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진로효능감, 진로정체감 및 진로장애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구지윤, 김유나 (2016).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8), 287-309.
- 권혜원 (2004). **중학생의 민주 시민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주, 송병국, 박정배 (2009). 가정유형과 학업성적 및 부모 양육방식에 따른 청소년 진로포부 비교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6(1), 113-135.
- 김남줄 (1994). 직업가치관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 **사회와 문화**, 8(1), 223-226.
- 김보채 (2003).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윤정, 손진희, 강혜영, 김지현, 유정이, 임은미, 손은령 (2010). **진로상담이론: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소라, 황영준 (2016). 고등학생 진로체험과 프로그램 평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9(2), 167-190.
- 김소희 (2007). **수련활동 체험이 청소년의 생활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정 (2013). 대학생의 직업가치 유형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26(1), 93-117.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철 (2005).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23.
- 김정숙 (2006). 학생의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79-102.
- 김현미, 임은미 (2012). 부모-자녀관계 및 변화가청소년의 직업가치변화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4), 57-73.
- 김현옥 (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연경, 정송, 홍세희 (2014).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청소년 비행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5(4), 211-240.
- 문선모 (1977).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 연구 제4집.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자 (2008). **진로집단상담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나 (2015). **가족체계 지각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정 (2009).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랩넨트 지도자 학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민지, 김계현 (2015). 대학생의 진로발달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서비스 요구의 차이. **상담학연구**, 16(4), 193-208.
- 박민지, 이신혜 (2016).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청소년 직업가치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제6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641-660.
- 박소희 (2011).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주도성을 중심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4(3), 307-331.
- 박수원, 김셋별 (2016).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5-32.
- 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7). 진로상담: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가치

- 추구. **상담학연구**, 8(2), 549-563.
- 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7(1), 109-125.
- 송현순 (1997). **진로 성숙에 관련된 변인에 관한 메타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세인, 이준기, 하민수, 이태경, 정영희 (2015). 중학교 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들의 직업가치관 구조 분석 : 사회네트워크적 접근. **영재교육연구**, 25(2), 195-216.
- 안현자, 이창환 (2011).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미래교육학연구**, 24(1), 1-21.
- 양한주 (1988).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직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어윤경 (2008). 아동의 내적·외적 직업 가치관 결정요인 탐색. **교육문제연구**, 32, 119-141.
- 오정아, 남부현 (2014).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1, 185-209.
- 이기학 (1992). **개인적 특성이 직업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길 (2002). **어머니와의 축진적 의사소통,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만족도가 여고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필 (1990). **학교생활 적응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아람, 김보영 (2015). 한국 고등학생의 진로 미결정 변화와 영향 요인: 성별, 직업 외적가치, 진로상담 효과 만족도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5), 79-101.
- 이은혜 (2013).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애, 최웅용 (2008). 진로상담: 진로가치 명료화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1), 129-146.

- 이지연 (2006). 청소년이 인식하는 일 가치의 변화. **직업교육연구**, 25(3), 163-181.
- 이지혜 (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자기결정성, 진로의식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3), 133-154.
- 이현립, 권소희 (2000). 중·고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상담학연구**, 1(1), 125-137.
- 이해경, 김혜원, 김은아 (2013). 고등학생들의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443-466.
- 이호진, 김완일 (2015). 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직업가치의 매개효과: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8), 429-452.
- 이효성 (2001). **남녀공학 공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관련 환경변인 탐색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언, 박보경, 현진실 (2012). 청소년의 직업가치관 변화: 2001년~2011년. **진로교육연구**, 25(3), 19-37.
- 전종희 (2014).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직업역량, 학교진로교육여건, 진로가치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관계. **청소년학연구**, 21(7), 1-25.
- 정미나, 노자은 (2016). 청소년의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 정미숙 (2008).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종화 (2002). **중학생들의 진로포부수준, 의사결정유형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주영 (2013). **대학교육만족도, 직업가치관, 직업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화실 (2009). **초등학생의 모에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석진 (2013). **청소년의 직업가치가 진로성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 모형을 적용하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차정원, 이형실 (2014). 청소년의 가족환경 및 또래환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3), 53-67.

- 최병률 (1986). 중학교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논총**, 2(1), 265-290.
- 통계청 (2015). 2015 청소년 통계.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 하문선 (2014). 대학생의 내, 외재적 직업가치 변화양상 및 잠재집단 유형과 성,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취, 진로성숙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33(3), 57-81.
- 하문선, 김경집, 김복환 (2014). 대학생의 직업가치 잠재 프로파일 분류 : 내적 보상, 외적 보상, 환경적 보상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7(3), 1-21.
- 한국고용정보원 (2006). **청년층을 위한 직업가치관 검사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 **상담학연구**, 7(4), 1137-1152.
- 황여정 (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인지수준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 131-158.
-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 Berríos-Al ison, A. C. (2005). Family influences on college students' occupational identit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2), 233-247.
- Brown, D. (Ed.). (2002).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 Brown, B.B., N. Mounts, S.D. Lamborn and L. Steinberg. (1993). Parenting practices and peer group affili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4, 467-482.
- Carlstrom, A. H., & Hughey, K. F. (2014). Exploring Work Values: Helping Students Articulate Their Good (Work) Life. *NACADA Journal*, 34(2), 5-15.
- Caro, F., & Philbald, C. T.(1965).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A reexamination of bases for social class differences in the occupational orientations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49, 465-475.
- Dawis, R. V. (2002). Person-environment-correspondence theory. *Career choice*

- and development, 4, 427-464.*
- Dawis, R. V., & Lofquist, L. A. (1984). *A psychological theory of work adjustment: an individual-differences model and its applicatio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uffy, R. D., & Sedlacek, W. E. (2007). "The work values of first year college students: exploring group differenc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5*, 359-364.
- Herzberg, F., Mausner, B., & Snyderman, B. B. (2011). *The motivation to work* (Vol. 1). Transaction publishers.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Johnson, M. K., & Mortimer, J. T. (2015). Reinforcement or compensation? The effects of parents' work and financial conditions on adolescents' work values during the Great Reces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7*, 89-100.
- Kasser, T., Ryan, R. M., Zax, M., & Sameroff, A. J. (1995). The relations of maternal and social environments to late adolescents' materialistic and prosocial values.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07.
- Kohn, M. L. & Schooler, C. (1983). *Work and personality*. Norwood, NJ: Ablex.
- Marini, M. M., & Greenberger, E. (1978). Sex differences in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Sociology of Work and Occupation, 5*(2), 147-178.
- Mark, R. L., Jennifer, H. C. & Sheena, S. I. (2005).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in the classroom: Age differences and academic correl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2), 184-196.
- Robinson, C. H., & Betz, N. E. (2008).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Super's Work Values Inventory-Revised.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456-473.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Vol. 438). New York: Free press.

- Rosenberg, M. (1957). *Occupations and values*. Glenco, Ill.: The Free Press.
- Rottinghaus, P. J., Hees, C. K., & Conrath, J. A. (2009). Enhancing job satisfaction perspectives: Combining Holland themes and basic interes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 139-151.
- Russell, J. E. (2001). Vocational psychology: An analysis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9(2), 226-234.
- Singer, S. L., & Steffle, B. (1954). Sex differences in job values and desires. *Personnel & Guidance Journal*.
- Sortheix, F. M., Dietrich, J., Chow, A., & Salmela-Aro, K. (2013). The role of career values for work engage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working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3), 466-475.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pp.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Super, D. E. (1995). Values: Their nature, assessment, and practical use. In D. E. Super and B. Sverko (Eds.), *Life roles, values, and careers: International findings of the Work Importance Study* (pp. 54-61). San Francisco: Jossey-Bass.
- Thompson, O. E. (1966). Occupational Values of High School Students. *Personnel & Guidance Journal*, 44(8).
- Vermunt, J. K. (2004). Latent profile model. *The sage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research methods*, 554-555.
- Von Eye, A., & Bogat, G. A. (2006). Person-oriented and variable-oriented research: Concepts, results, and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2(3), 390-420.
- Wagman, M. (1965). Sex and age differences in occupational value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4, 258-262.

- Williams, K. E., Ciarrochi, J., & Heaven, P. C. (2012). Inflexible parents, inflexible kids: A 6-year longitudinal study of parenting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flexibil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8), 1053-1066.
- Young, R. A., Valach, L., Paseluikho, M. A., Dover, C., Matthes, G. E., Paproski, D. L., & Sankey, A. M. (1997). The joint action of parents and adolescents in conversation about career.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1), 72-86.
- Youniss, J. and D.L. Heynie. (1992). Friendship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and Behavior Pediatrics*, 13(1), 59-66.

ABSTRACT

Classifying latent profiles in work values and testing the effect of determinants of adolescents

Park, Minji* · Lee, Shinhy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latent profiles of high school students' work valu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and to test the effects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related variables on the profil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the 6th wave of data from the first-grade panel(selected 2,056 students) of middle school of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KCYP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atent profile analysis, four types of profiles which were pursuing different work values were revealed: an across-the-board high pursuing type, an aptitude and stability pursuing type, an across-the-board pursuing type, and an intrinsic compensation ignored type. Following logistic regression, it was revealed that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related variables impact upon the profiles, such as gender, academic grades,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with life, community spirit, parental attitudes, conversation frequency with father,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work-related activity program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ifferentiated career counseling services are necessar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in the context of career counseling and coaching.

Key Words: latent profile analysis, adolescents, work values

투고일: 2016. 12. 5, 심사일: 2017. 2. 1, 심사완료일: 2017. 2. 14

* First auth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sinhye@snu.ac.kr